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양화진, 창천, 염리 공영주차장 창천, 염리공영주차장

마포경찰서로부터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 받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관내 양화진, 창천, 염리 공영주차장이 마포경찰서에서 선정하는 ‘범죄예방 우수주차장’으로 선정됐다.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식은 양화진 공영주차장에서 지난 4월8일 김영식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최현석 마포경찰서장과 내빈으로는 마포구청장 유동균 구청장, 마포구의회 이필레 구의회의장 등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식을 가졌다.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은 여성의 치안불안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해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감시성과 접근통제, 관리운영 체계 등 80개 세부 항목에 대해 마포경찰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0% 이상의 점수를 충족하면 우수시설로 인증해준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우수주차장 인증을 위해 TF팀을 구

성해 6개월간 CCTV 교체, LED등 전면 교체, 비상벨 설치 등 미비 시설을 보완 개선하고, 주차장 관리 매뉴얼 제작 등 주차장 관리운영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여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을 받았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김영식 이사장은“앞으로도 주민의 불편사항과 좋은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렴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에도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점검과 개선을 통해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대형마트, 아파트 등 다중 이용 주차장을 대상으로 방범진단을 확대해 여성범죄예방 및 안전시설을 더욱 강화하고,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